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회

## 결 정

사 건 명 21-직권-00002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1. □□□□학교 학생 ○○○, 2. ◎◎◎, 3. △△△,  
4. ▽▽▽, 5. ◇◇◇

피 조 사 자 □□□□학교 교사 ●●●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므로,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나. 피해 학생들이 폭력상황에 노출되어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가 보다 일찍 사안을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다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에 소홀하여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도록 한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들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라. 특수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인력 보충, 학생 행동 중재 지원,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2. □□□□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피해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 2021. 12. 3.(금) □□□□학교가 사안보고 하였고, 같은 해, 12. 7. (화) 학교를 방문하여 관련자 면담조사 실시와 관련 자료 검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가해교사와 면담하였다. 같은 해, 12. 10.(금) 피해학생 보호자(어머니)와 관련자를 면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2021. 11. 11.(목) 육상 방과후수업 시간에 가해교사가 다른 학생이 보는 데서 ○○○ 학생(이하, '피해학생 1.')에게 본인을 때리도

록 하고, 이 모습을 다른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이며, 언론이 피해내용을 보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직권조사 사건 요지

1) 2021. 11. 11.(목) 육상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본인을 때리도록 하였다.

2)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2.와 3.에게 위 1)의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본인을 때리도록 하는 상황을 피해학생 4., 5.가 목격하였다.

4) 학교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조치, 신고의무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 3. 직권 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 관련자 면담조사, 관련 자료 조사 등

### 나. 조사 경과

- 2021. 12. 3.(금) 사안보고 접수, 교감 통화하여 사안내용 확인
- 2021. 12. 7.(화) 면담조사(학교 관리자), 가해교사 면담조사
- 2021. 12. 10.(금) 피해학생 보호자와 관련자 면담조사

- 2021. 12. 13.(월) 기초조사 보고, 직권조사 통보
- 2021. 12. 22.(수) 관련자 면담조사(☎☎☎ 담임교사)
- 2021. 12. 23.(목) 관련자 면담조사(교장, 교감)
- 2021. 12. 24.(금) 피조사자 면담(문답) 조사

## II.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다.

### 2. 당사자와 참고인 주장

#### 가. 피해 학부모의 주장

2021년 11월 11일, 16시 5분~10분 사이에 담임교사 전화를 받고 피조사자가 수업하는 교실로 갔는데,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1.을 데리고 나가 고, 피조사자가 큰 TV 화면으로 동영상 시작 후 5초에서 10초 사이의 영상을 음소거하여 3~5초 동안 보여주었다.

영상을 보고 놀라서 “왜 이렇게 맞고 계셨어요?”라고 말했는데, 피조사자가 자신의 교육철학이 “아이가 공격성이 나오면 얼마만큼 나오는지 맞아보거나 지켜본다.”라고 말했다.

“1대 때리는 아이를 100대 때리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피조사자는 전에도 그렇게 했으며, “누가 찍었어요?”라고 물어보자 같이 있던 학생이 찍었다고 말했다.

“관객들을 놓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아이는 더 흥분하죠.”라고 말

하자, 피조사자가 “그럼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야 하나요?”라고 말했다.

피조사자가 “자기가 팔을 잡으면 명이 들까봐 못했다.”라고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를 말했다.

같은 해, 11월 16일에 피조사자에게 문자를 보내 해당 영상을 받았다.

## 나. 피조사자의 주장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육상 방과후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피해학생 1.이 지쳐서 스스로 공격행동을 중단하고 멈출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꼈고 눈물이 났다. 다만, 이후 영상을 시청한 후 교육적으로 언어적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피해학생 2.에게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영상을 어머니와 의논하기 위한 자료로만 생각해서 인권침해로 생각하지 못했다.

11월 11일, 피해학생 1. 담임교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낸 시간은 어머니가 오시기 전 15시 50분경으로 기억하고,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당시 제가 방과후 담당이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 부탁하여 어머니의 방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교감선생님에게 제 휴대전화로 해당 동영상을 보여준 시간은 11월 17일 오전 9시 경이었으며, 교감선생님에게 학생지도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교감선생님에게 ‘해당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어머니와 계속해서 연락하기로 약속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학교관리자(교감, 교장)에게 전체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한 동영상으로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보여드리지 못했다. 피해학생 2.의 휴대전화에서 제가 사용하는 PC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어머니께 보냈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에서 동영상을 재생했다.

학교관리자(교감, 교장)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공격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했기 때문에, 저를 향한 학생의 공격행동은 특수교사라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지도했고, 당시에 해당 학생의 방과후활동 지도교사로서 제가 어머니와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보고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1월 26일, (학교로) 학교운영위원장이 전화해서, 12월 1일(수) 면담 약속을 잡았다고, 16시경에 교감선생님에게 이야기 들었고, 경위서 작성을 말씀하셔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그때까지는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않은 상태였다.

12월 1일(수) 10시경 학부모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이야기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학생 1.을 포함하여 같이 있었던 4명의 학생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피해학생 1.의 팔꿈치, 팔의 상박 부위의 상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는데, 12월 1일 어머니와 면담 중에 처음 이야기 들었고, 당시 피해학생 1.의 팔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

제가 피해학생 1.에게 저를 때리도록 한 행위 당시에는 피해학생 1.의 공격행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였고, 다른 학생들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피해학생 1.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이고, 당시 이례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행동이기에 반드시 지도해주고 싶었다.

제가 피해학생 2.에게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 1.의 공격행동을 피해학생 1.의 어머니와 의논하기 위해서였고, 직접 촬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학생 2.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폭력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학대라는 의견에 대해, 그때 당시 피해학생 1.의 공격행동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다른 학생을 보호하고 분리조치 하였다고 생각했고, 2021년 동안 피해학생 1.이 방과후수업 중에 피해학생 2., 피해학생 5.를 때리거나 때리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해당 사건 발생 당시 피해학생 1.의 공격행동으로 저와 다른 학생들이 신체적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으로 당황스러웠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당일 즉시 피해학생 1.의 어머니를 학교에 모시고 면담을 했고,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약속했고, 다른 학생들은 상황 이후 저를 걱정해주었고 학교생활을 잘 하였기 때문에 신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다. 피해학생 1. 담임교사 ㉹㉹㉹ 주장

11월 11일(목) 하교 전,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 부모님이 학교에 방문 할 수 있는지 부탁하셔서, 바로 어머니와 통화하여 학교 방문을 부탁드렸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피조사자에게 물었고 영상의 일부도 봤는



데 전부 확인은 못했다. 그 후 어머니가 도착해서 어머니와 피조사자가 면담하셨고, 피해학생 1.과 저는 자리를 피해 드렸다. 면담이 끝나고 어머니가 피해학생 1.을 데리러 오셔서 걱정이 되어 위로해드리고 어머니가 피해학생 1.과 가신다고 하여 인사드렸고, 피조사자에게 어머니가 잘 면담하고 돌아갔다고 전해 들었다.

11월 11일, 피조사자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낸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님 오시기 전이고, 피조사자가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중재를 했음에도 아이의 행동이 발생해서 어머니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저에게는 담임이기 때문에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

동영상을 받고 난 후 그 영상을 잠깐 동안 보았지만 너무 놀랐고, 담임 입장에서 피조사자가 왜 그렇게 맞고 계셨는지 여쭙었다. 그리고 피해학생 1. 어머니와도 관련하여 면담했다.

동영상과 관련해서 피조사자한테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는지 여쭙었는데, 피조사자가 어머니와 면담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

동영상을 삭제한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부모님이 동영상을 전부 봐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다. 저는 영상을 보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영상을 봐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심리적으로 압박과 스트레스가 되었다. 어머니는 피조사자와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피조사자는 어머니와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하셔서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11월 12일부터 피해학생 1.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아, 피해학생 1.

이 등교하지 않는다고 교감선생님께 구두로 보고를 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피해학생 1. 학부모께 등교와 관련하여 문자를 드렸다. (피해학생 1. 학부모님과) 통화가 되었을 때 전화보다는 문자로 연락을 요청하셨고 답장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시간이 지나면 등교할 거라고 하셨고, 피해학생 1. 학부모가 피해학생 1.을 많이 사랑하고 예뻐해 준 뒤에 학교에 보내기로 하고 통화를 마무리 했다.

피해학생 1.의 학부모님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도 이야기했는데, 피해학생 1.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원인에 대해서 피조사자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점을 이야기했고, 담임인 저에게도 서운한 점을 말씀하셨다. 제가 피해학생 2.에게 그때 상황을 물어 보았는데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를 때리고, 피조사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피조사자에게 전달이 안 될 거라 믿고 말한다고 거듭 당부하여 학부모와의 약속 때문에 피조사자에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11월 26일 아침에 문자로 안부를 묻고, 이후 11월 29일에 교감선생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피해학생 1. 학부모께 학교로 방문 요청을 하였다.

12월 1일(수) 면담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피해학생 1. 학부모가 그날 피해학생 1.을 보는 눈빛에 대해 말하시고, 동영상 전체를 보았는지를 말하며, 안 본 것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셨다.

12월 2일(목) 이후 담임교체에 대해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다른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통화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많이 놀랐고 피조사자의 의도가 학생을 학대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학생들이 그

일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다른 학생들을 이야기 하였을 때, 다른 학생들이 그 일과 관련해 특별한 징후가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 라. ○○○○학교 교감 주장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것은 2021년 11월 16일(화) 09:20경, 교장실에 출장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부대표 3분이 교장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고,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5분 정도 맞았다는 말씀을 듣고 고등 교무부장에게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고 출장을 갔다.

다음날 17일, 9시경 교장실에서 피조사자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을 때 상담을 위해 찍었고 학부모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고 하고, 동영상이 있다고 했고, 학부모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잠깐 동안 피조사자가 맞는 부분만 동영상을 보았다.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용으로 촬영하였고 피조사자가 맞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다. 또한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찍게 하였다고 피조사자가 말했다.

고등 교무선생님에게 물어 보았을 때, 학생에게 맞아서 피조사자 얼굴이 빨개졌다며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11월 26일 오후 1시경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업무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전화를 하였는데, 학부모 대표들이 16일에 학교를 방문하였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동영상을 조금만 본 상태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고 12월 1일로 면담 일정을 잡았다. 통화 후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 후로 담임 선생님이 연락해서 일정을 잡았다.

12월 1일, 약속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출장 일정이 발생하여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학부모 대표와 피해학생 1. 학부모가 일부러 피하려 했으며, 큰소리로 항의하였고 동영상을 보았는지 물으셔서, 잠깐 보았다고 하자 불법 동영상이라고 말씀하고 항의하시며 교장이 없으니 돌아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왕 방문하셨으니, 피조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학부모는 저에게 일부러 사건을 처리 하지 않은 것은 교권보호로 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또한 관리자 옷을 벗길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학생 1. 학부모가 전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피조사자에게 동의해달라고 하셔서 10시 20분쯤 처음으로 전체 동영상을 학부모와 같이 시청했다.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 3분 정도의 전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피조사자보다 더 나쁘다고 하시며 동영상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말도 들었다. 담임 선생님은 동영상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체를 보지 못했고, (학부모가) 피조사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학부모는 이후로는 자신은 학교와 연락을 끊겠으며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학부모 대표들을 통하라고 말하며 언론이나 뉴스 등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를 떠났다.

그 후 학부모가 가신 후에 12시경 교장선생님에게 당일 있었던 일과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했고, 장애인인권연대가 13시경 교무실로 전화해 교장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여 12월 2일에 면담 일정을 잡았다.

12월 2일, 13시에 장애인인권연대 대표 1인과 학부모 3명이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듣게 되었고, 긴급하게 교무부장 협의를 거쳐 향후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인성인권담당부장 선생님이 학교담당경찰관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를 하였고, 장애인인권연대가 요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문자로 보냈다. 또한, 긴급하게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에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고 해당 사안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교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즉시 관련 육상부 학생들 4명에게 전문상담을 받도록 했고 담임들에게 학부모 상담을 하도록 했으나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장애인인권연대가 교장실에 전화를 해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들었다.

#### 마. □□□□학교장 주장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것은 2021년 11월 16일(화) 09:00경, 학교운영위원장 1명, 학부모 대표 2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방과

후수업 시간에 피조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알게 되었다. 다음날 11월 17일 교감선생님에게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 고만 보고를 받았고 피해학생 1.이 등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도록 담임 선생님에게 요청했다. 그 후 12월 1일에 학부모 대표가 방문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12월 1일 초등학교장의 날 공감톡 연수가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었다.

12월 2일 오전에 교감선생님이 해당 사안을 대면보고 했고, 사안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 1. 집으로 가정방문 하기 위해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9시에서 9시 30분경) 동영상을 처음 보았다.

12월 2일, 동영상을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학생 1.의 등교 여부를 확인 요청했고, 피조사자를 불러서 분리 조치를 안내했다. 12월 2일 13시경 장애인인권연대 대표 1인과 학부모 3명이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듣게 되었고, 긴급하게 교무부장 협의를 거쳐 향후 대책을 수립했다. 그에 따라 인성인권담당부장 선생님이 학교담당경찰관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를 하였고, 장애인인권연대가 요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교감이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문자로 보냈다. 긴급하게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에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고, 해당 사안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교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즉시 관련 육상부 학생들 4명에게 전문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하였고 담임들에게 학부모 상담을 하도록 했으나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음을 확인했다.

### 3. 사건 관련 기록 자료

#### 가. 학교 사안 확인서의 피해학생별 사안내용(2021. 12. 6.)

##### 1) 피해학생 2.

방과후 육상시간에 ○○○이가 자주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가 나(◎◎◎)와 △△△, ◇◇◇이를 방과후 육상시간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선생님도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핸드폰 촬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업방해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육상부 선생님의 머리를 ○○이가 먼저 강하게 때렸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하셨는데, 집에는 가져가지 않고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한 번 보고 지웠습니다. 동영상 촬영으로 수업방해를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불만이 없습니다. 육상선생님과 핸드폰 촬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며 기분이 몹시 상한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 2) 피해학생 3.

○○○ 친구가 방과후 육상시간에 ◎◎◎과 ◇◇◇ 친구 머리를 때리고 나는 때리지 않았는데 ●●● 선생님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 선생님이 ◎◎◎과 저에게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하셔서 수업 동영상 촬영을 해보지 않아서 처음에는 촬영이 좀 싫었지만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영상 촬영하고 난 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지웠습니다. 그 후론 동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 선생님과 빨리 육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민은 없습니다.

### 3) 피해학생 4.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하지 못함.)

### 4) 피해학생 5.

○○○이 때렸으나 좋다고 말하였으며 육상부 선생님도 좋다고 말함.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함.)

## 나. 피해학생 1. 관련 기록 자료

### 1) 담임교사의 피해학생 1. 학생행동특성을 정리한 나이스 기록

(2021) 일시	기록 내용
03. 11.	어머니와 통화하여 ○○이가 ㅁㅁㅁㅁ이를 계속 건드리고 우진이 머리를 세게 쳐서 하지 않기로 야단치고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함. (생략)
04. 22.	(생략) 5교시 옆 친구(00, 00)를 때리고 지도사 선생님에게도 과격하게 행동을 하였다고 함. (생략)
06. 29.	5교시부터 ○○이가 같은 반 친구들을 번갈아가며 머리에 딱밤을 놓고 일부러 아이들 옷을 잡아끌고 꼬집는 등 행동을 보임. (생략)
09. 07.	오전에 잘 지내다가 오후 5교시부터 새로 오신 선생님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때리고, 선생님 머리도 꿀밤을 하면서 말썽을 피움. (생략)
10. 12.	7교시 장구활동을 하면서 장구채편으로 ◎◎이를 때리려고 계속 채편을 들고 ◎◎이 쪽으로 찌르거나 교사를 부르며 친구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보임. (생략) 채편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계속 치면서 산만한 행동을 보임.
10. 27.	8교시 수업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00이 머리를 세게 때리려고 하여 00이가 ‘하지마’ 라고 크게 소리를 내며 제지하니 표정이 살짝 굳음. (생략)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마를 책상에 한 번 박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여러 번 치는 행위를 보임.



## 2) 담임 교사가 피해학생 1. 학부모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중 발췌

(2021) 일시	문자 내용
4. 28.	○○이가 오전부터 ■■■이 머리를 엄청 세게 몇 번 때렸나 봐요.
6. 2.	○○이가 친구가 어제 잠을 못자서 한쪽에서 자고 있는데 가서 머리를 세게 또 때리고 그랬나 봐요.
6. 9.	5교시부터 ○○이가 반 친구들을 번갈아가며 머리에 딱콩을 하고 계속 좀 일부러 아이들 옷을 잡아끌고 꼬집고 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6. 29.	문 열고 다른 반에 들어가서 거기 반 여자 친구도 건드리려 하고 수업 마무리 하시던 선생님에게도 계속 팔을 툭 치고 도망갔나 봐요. 그리고 나서도 장구치는데 장구채로 자꾸 옆에 친구를 툭 건들고 때리려고 해서 옆에 친구도 좀 화가 나구요.
7. 2.	선생님 머리를 계속 만지고 교실 뒤로 도망가고, 팔을 꼭 잡는 등 그러다가 교실에 있는 물건도 옆에 다목적실에 다 가지고 가구요.
7. 7.	4교시 수업 들어갔는데, ○○이가 옆에 친구를 계속 건들면서 때렸더라구요.
8. 31.	친구에게 자꾸 꿀밤을 놓다가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하니 친구 팔을 손톱으로 좀 긁었어요.
9. 7.	○○이가 오전에는 잘 지냈는데 오후에 친구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건드리고 선생님 머리도 때리고 쉬고 있는 친구도 자고 있는데 건드렸나 봅니다.
10. 8.	방과후교실 가서 친구를 자꾸 때려서 친구가 ○○이 데리고 저에게 왔더라구요.
10. 27.	○○이가 8교시에 친구머리를 세게 때렸어요(중략). 뭔가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머리를 책상에 통하고 자기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는 행동을 보이면서 조금 흥분한 모습을 보이더라구요.
11. 9.	오전에 ○○이가 자꾸 친구에게 손을 올려서 친구를 밀고 때려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오늘 좋아하는 활동 못한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뛰어가서 친구들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어요.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제가 바로 아이들 중간으로 가서 막기는 했는데 이미 친구 어깨, 팔 부분을 많이 그랬어요. 친구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치고 저도 크게 야단을 치고나서 ~

#### 4. 인정사실과 판단

##### 가. 인정사실

- 1) 2021. 11. 11.(목) 육상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도록 하였다.
- 2) 같은 때,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2.에게 위 인정사실 1)의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 3) 같은 때,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도록 하는 상황을 피해학생 3., 4., 5.가 목격했다.
- 4) 2021. 3.부터 11.까지 학교에서 피해학생 1.이 공격행동을 여러 번 하였다.
- 5) 2021. 11. 16.(화)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에게 사안을 이야기하였다.
- 6) 2021. 11. 26.(금) 학교운영위원장이 교감과 통화하여 사안을 이야기하였다.
- 7) 2021. 12. 2.(목)경 해당 사안을 교육청 사안보고하고 경찰 신고하였다.

#####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또

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란, 학생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학생이 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정, 학교 등으로부터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권리’, 학생이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등의 ‘폭력 예방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할 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고,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복하도록 하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자문의뢰(피해 학생 2.가 촬영한 동영상(3분))하였고, 자문의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의견(피해정도, 피해회복 방안)	
1. A학생	<p>발달장애 아동이 폭력 행위를 하는 이유는 파괴적 기질, 타고난 충동성, 인지발달 지연, 예민한 기분, 환경 자극, 공존 질환 등 여러 가지입니다. 또한, 획득, 회피, 관심, 의사소통 등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사는 아동의 특성을 알고, 폭력 행위를 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경을 바꾸고 대체 행동을 강화하여 도전적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의 행위는 매우 감정적이고, 아동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복수이며, 정서학대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적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p> <p>아동에게 이번 일은 정서적 외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 심리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개월 이상 아동의 외상 반응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 치료의 시작은 환경의 안정화이므로 교사를 아동과 분리해야 합니다. 아동의 생활연령과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상담 및 놀이 치료 등의 심리 중재를 시작하시고, 추후 필요하면 병원 연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p>
2. B학생	<p>다른 장애 학생에게 폭력을 당했으며,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학대 행위를 억지로 촬영하였으므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피해가 복합적입니다. 전문가 면담 및 행동관찰을 통해 각각의 피해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교사와는 분리하되, A학생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각각을 중재하시되, 우선순위를 전하여 더 위중한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고, 심리 중재를 하면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p>
3. C,D,E 학생	<p>A 학생이 특수교사를 때렸으나 정황상 교사의 정서학대 행위이며, 특수교사는 이를 목격한 학생에게도 정서학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C,D,E 학생 역시 교사와 분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추후 필요하면 생활연령과 인지발달 수준에 맞추어 전문가를 배치하여 상담 및 놀이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의 각종 심리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명의 피해 아동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지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위 사안 관련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안 발생 당일 피해학생 1.이 방과후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을 때린 사실과 피조사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1.이 2021학년도 학교생활 과정에서 한 달에 1~2회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공격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학생 1.의 담임교사가 기록한 나이스 기록, 담임교사와 피해학생 1.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등을 살펴보면, 평소 피해학생 1.의 공격 행동을 담임교사는 물론, 피해학생 1.의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학생 1.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안 발생 당일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고 피해학생 1.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한 일련의 과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피조사자는 사안 발생 당일, 피해학생 1.이 보인 행동은 ‘이례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행동을 보였고, 피해학생 1.의 이례적인 공격 행동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조사자의 주장대로 피해학생 1.의 행동이 평소와 달리 ‘이례적’이라면, 먼저, 피해학생 1.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며,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 1.의 공격 행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도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조사자는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라고 여러 번 지시하였고, 피해 학생 2.와 3.에게는 피해학생 1.이 피조사자를 때리는 장

면을 촬영하게 하였고, 피해학생 4.와 5.에게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동은 교육현장인 교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이며, 매우 폭력적이며,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고, 피해학생 1.의 행동이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학교 교실에서 교사인 피조사자가 보인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 직접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학생이 ‘폭력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인정사실 1)과 같이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게 한 행위는, 피해학생 1.의 ‘폭력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인정사실 2), 3)과 같이 피해학생 2.와 3.에게 피조사자가 맞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학생 4.와 5.가 지켜도록 한 행위는,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 2) 양심의 자유 침해와 인격권 침해

피조사자는 위 인정사실 1)과 같이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도록 하였고, 인정사실 2)와 같이 피해학생 2.와 3.에게 피조사자가 맞는 장

면을 촬영하게 하였다. 피해학생 2.가 촬영한 3분 가량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조사자가 여러 번 피해학생 1.에게 “다시”, “다시 해봐”라고 공격 행동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조사자는 사안 발생 당일, 피해학생 1.의 공격 행동이 계속되었고 피조사자에게도 공격 행동을 보여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맞는 모습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학생 1.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 또는 피조사자에게 보인 공격 행동은 교육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라고 여러 번 지시한 상황은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의 공격 행동을 멈추기 보다는 피해학생 1.의 공격성을 드러나게 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해학생 1.이 피조사자에게 공격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두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없으며, 동영상에 담긴 피해학생 1.의 공격 행동은 자신의 의지라기 보다는 피조사자의 지시 내지 강요라고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와 ‘자기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며, 피조사자가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라고 여러 번 지시 내지 강요한 행위는 피해학생 1.의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를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켜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 1.이 교사를 때린 학생으로 각인 될 수 있다는 점, 피해학생 1.이 원치 않는 공격성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 1.의 인격권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초상권<sup>1)</sup>(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 2)와 같이 피조사자는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도록 하고, 이 모습을 피해학생 2.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피조사자는 학부모 상담의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행위는 피해학생의 초상권(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해학생 1.이 원치 않는 공격성을 촬영당하였다는 점에서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4)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조치, 신고 의무 이행 관련

학교 교사와 관리자는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고,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복하도록 하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먼저, 피해학생 1.의 담임교사는 사안을 최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학생 1.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교사는 동영상 등을 확인하거나 피해학생 1.의 어머니를 면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학생 1.이 사안발생 다음날부터 등교하지 않았고, 피해학생 1.의 어머니가 여러 번 동영상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담임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

---

1)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며, 인격권 안에 초상권이 포함됨. 초상권의 내용에는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됨.



해보았듯이 담임교사와 피해학생 1. 어머니의 평소 관계 등으로 볼 때, 피해학생 1.의 어머니가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느꼈을 분노와 절망감은 상당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7)과 같이 학교는 사안이 발생하고 20여 일이 지난 후인 2021. 12. 2.(목)경 해당 폭력 사안을 교육청에 사안보고 하였고 경찰 신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 5), 6)의 학교 관리자들의 진술에 따른 사건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일 이후 ① 2021년 11월 12일(금)부터 피해학생 1.이 등교하지 않음, ② 같은 해, 같은 달 16일(화)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면담, ③ 같은 달, 17일(수) 교감이 피조사자와 면담하여 사안 조사를 실시, 동영상 일부 확인, ④ 같은 달, 26일(금) 사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장과 교감 통화, ⑤ 같은 해, 12월 1일(수) 학부모들 학교 방문(학교장 연수 출장), 교감 동영상을 전체 확인, ⑥ 같은 해, 같은 달, 2일(목) 교장 동영상을 확인하였다. 학교 관리자가 사안 발생 당일인 11월 11일 또는 11월 12일에 사안을 보고받지 못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11월 16일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을 면담하여 사안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11월 26일 학교운영위원장과 통화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 했음에도, 교감은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전체 동영상을 확인하고, 교장은 12월 2일에 동영상을 확인하였다.

학교는 사안 발생 당일부터 여러 번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학교관리자들은 학생들이 폭

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고의무도 소홀하였다고 판단한다.

## 5) 소결

피조사자가 교실에서 피해학생 1.에게 피조사자를 때리라고 지시, 강요하고, 피해학생 2.와 3.에게 피조사자가 학생에게 맞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학생 4.와 5.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게 한 행위는 교사가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이며, 폭력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장애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보인 모습은 특수학교 교사가 갖고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현상을 ‘때리는 학생, 맞는 교사’라는 틀로만 인식하고 있고, “특수교사는 피해자”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현상을 특수교사라는 전문가적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교사나 관리자가 폭력에 민감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인권감수성 또한 낮다고 판단한다.

피조사자가 담임교사에게 사안 관련 동영상을 전달하였고, 학교관리자가 피조사자가 학생에게 맞는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누구하나, “동영상을 왜? 누가?” 촬영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특수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의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피해학생 1.은 물론이고 피해학생 2., 3., 4., 5.가 목격하고 경험한 11월 11일 교실 안 장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며,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느꼈을 혼란과 두려움 등의 감정은 복합적이어서, 그 예후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문 의뢰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다. 결론

위와 같이, 피조사자는 피해 학생 1.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피조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 또한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인지하고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학생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피해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인 피조사자와 특수학교 교사들 또한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떨어지고, 특수학교의 교사는 당연히 폭력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중대한 문제 상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와 전라북도

교육청은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Ⅲ.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2. 1. 27.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 [붙임 1]

### 관련 법령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 한다.

####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 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